

전남 1호 데이터센터 착공...장성군, AI 전진기지 첫 발

서버·네트워크·저장장치 한곳에...지방 분산 구축 첫 사례
3959억원 투입 26메가와트급 1기...2028년 3월부터 운영

장성군이 전남에서 처음으로 데이터센터 구축 공사에 착수해 '첨단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데이터 관련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서버, 네트워크, 저장장치가 한곳에 모여 있는 시설이다.

'장성파인데이터센터'는 정부의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에 따른 지방 분산 구축의 첫 번째 사례로, 총 395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전남 지역 1호 데이터센터로 조성된다. 당장 26메가와트(MW)급 1기로 구성되며, 향후 60메가와트(MW)까지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CJ올리브네트웍스, 현대차증권, 대우건설, 파인애플트너스자산운용㈜ 등의 기업이 참여했다.

특히 장성파인데이터센터가 구축되는 지역은 국립심뇌혈관센터와 나노기술 제2일반산업단지 등이 위치한 첨단·의료 산업 발전의 중심지다. 대규모

주거단지도 가까워 인력 확보에 용이하며, 다양한 상승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15일 열린 착공식에는 장성군민과 김한중 군수,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개호 지역구 국회의원, 심민섭 장성군의회 의장과 도·군의원, 기획재정부·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기관 관계자와 참여 기업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해 장성의 미래 산업을 여는 역사적인 순간을 축하했다.

앞서 장성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인 2023년부터 데이터센터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서 광주도시공사와 부지 매매 약정 계약을 체결하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했다. 2024년에는 업무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전남도·CJ올리브네트웍스·파인애플트너스자산운용(주)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기획재정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745억원, 산단환경개선펀드 412억원을 확보하는 등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장성군이 15일 남면 첨단3지구 홍보관에서 전남지역 제1호 데이터센터인 '장성파인데이터센터' 착공식을 갖고 '첨단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장성군 제공>

장성파인데이터센터는 오는 2028년 2월 공사를 마무리하고 3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전남 첫 데이터센터인 '장성

파인데이터센터'를 마중물 삼아 고려시멘트 건동광산 부지 데이터센터 조성, RE100 기반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연계 등 더 큰 도약을 준비할 방침"

이라며 "장성을 대한민국 데이터센터 전진기지로 육성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함평 양서파충류생태공원 '호기심 쑥쑥'

'뱀 허물 만지기' 상시 운영...동물 접촉 안전 체험 대안 눈길



함평 양서파충류 생태 공원이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생태 체험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함평군은 함평양서파충류 생태공원에서 '뱀 허물 만지기 체험 프로그램(사진)'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서파충류 생태 공원에서는 도마뱀, 거북, 뱀 등 다양한 양서·파충류를 가까이에서 관찰하는 전시·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생물들의 서식 환경과 생태적 특징을 생생히 배울 수 있어 차별화된 콘텐츠로 사랑을 받고 있다.

다양한 동물을 잘 이해하고 생명 존중과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알리는 교육적 역할도 하고 있다.

특히 '뱀 허물 만지기 체험 프로그램'은 최근 동물복지 인식 확산 등으로 동물 접촉 체험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호기심을 만족하게 하면서도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대안 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끈다.

체험은 아이들에게도 위험성이 거의 없고, 동물 복지 침해 없이 생태를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

화순군, 농업 분야 3종 수상 '접경사'

국제농업박람회 대상·농촌지도대상 우수상·농업인 교육 우수기관

화순군이 국제농업박람회 '대상' 등 농업 분야 수상으로 농정행정 우수기관의 위용을 과시했다.

화순군은 최근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진행된 2025년 전남 농업진흥사업 '국제농업박람회 종합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2025년 국제농업박람회는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를 주제로 25개국 380여 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대규모 국제행사다.

화순군은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을 연계한 시군 홍보·판매 부스 운영, 영농부산물(토마토 줄기)을 활용한 화순 꽃강길 음악분수 정원 조성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여 지역 농산물 홍보에 성과를 냈다. 또 농업기술센터 여은주 농촌지도사가 '2025년 전남농촌지도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차지했다.

'전남농촌지도대상'은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신념과 열정,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농업·농촌 발전

전과 기술 보급에 기여한 근무 경력 10년 이상의 농촌지도직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서류 및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여은주 지도사는 농산물 안전 분석센터 기반 구축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 지원에 기여했으며, 작두콩 꼬투리의 식품 원료 등재를 이끈 공로를 인정 받았다.

앞서 화순군은 전남 농촌진흥사업 농업인 전문 교육 분야에서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농업인 실용교육과 공익직불제 교육을 병행 운영하고, 장기 교육 과정으로 한우과와 신규 농업인교를 체계적으로 진행한 것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작물별 소규모 현장 교육이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역특화 품목 신기술 현장 컨설팅을 통해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담양군, 참전·5·18민주유공자 지원 확대

배우자수당 등 신설

담양군이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참전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담양군은 내년부터 참전유공자 수당을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수당이 승계되지 않는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배우자수당을 월 5만원 신설, 지급한다.

배우자수당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담양군

보훈명예수당과는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또 5·18민주유공자 애우 강화를 위해 전남도에서 지급하는 월 6만원과 별도로 담양군 5·18민주명예수당 4만원을 추가 신설해 내년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분들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지방정부의 책무"라며 "보훈회관이 포함된 세대아울렛센터 건립 등 보훈 기반 확충과 복지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국립나주박물관 인프라 개선 10억 국비 확보

본관 내 가족 복합체험존 확충...교육·체험·전시 공간 조성

나주시가 지역 문화인프라 확충과 가족 관광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나주시는 국립나주박물관 디지털 복합문화관 내 어린이박물관 신규 개관에 맞춰 본관 공간을 가족 단위 복합 체험 공간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10억원의 국고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확보는 내년 개관을 앞둔 디지털 복합문화관과 어린이박물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가족 친화형 문화환경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예산 확보는 증가하는 박물관 관람객 수요와 특히 가족 단위 방문 확대에 대응하고 전남 지역 어린이 문화,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국립나주박물관은 최근 관람층이 다양해지고 체험형 전시 수요가 높아지면서 가족 중심 복합 체험 공간 조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었다.

이에 나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을 수차례 방문해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며 국비 지원을 요청해 왔다.

현재 국립나주박물관 디지털 복합문화관은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복합문화관 내 어린이박물관은 2026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준비가 한창이다.

이번 국고 확보로 교육과 체험, 전시가 결합한 가족 친화형 문화공간 조성이 탄력받게 됐으며 향후 어린이박물관과 함께 지역 가족 관광 수요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더 풍요로운 문화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대숲맑은 담양쌀' 영국 수출길...유럽 입맛 공략

트리스톤과 공급 계약 체결

딸기 등 수출 확대에도 탄력

담양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담양RPC)이 영국 외식·유통업체 트리스톤과 대숲맑은 담양쌀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초도 물량을 선적했다.

이번 수출은 지난 9월 담양군과 담양RPC가 영국 업체 측과 연간 납품계약을 맺은 이후 추진된 해외 판로 확대 노력의 첫 성과다.

대숲맑은 담양쌀은 대한민국 명품쌀 평가 대상 수상과 서울시 학교급식 납품 선정 등으로 품질을 인정받아 왔으며, 유럽시장 요구에 맞춘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인증 시설과 도정 시스템을 갖춘 담양군 통합RPC가 수출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군은 프랑스와 베트남 등으로의 수출경험에 최근 높아진 한식 선호 흐름이 더해지며 영국 공급



지난 12일 정철원 담양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숲맑은 담양쌀의 영국 수출을 위한 초도 물량을 선적식이 열렸다. <담양군 제공>

계약이 딸기 등 담양 농특산물 수출 확대에도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담양 농특산물이 안정적인

로 해외시장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판로 확대와 수출 기반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장흥 보림사에 '무전원 태양광 가로등'

국보사찰 친환경 혁신...최장 8일 점등 독립형 ESS 시스템

장흥군 유치면에 자리한 국보사찰 보림사가 최근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력선 없이 점등되는 '무전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했다.

사찰 환경 보존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이번 설치에는 정응주 지님의 주도로 추진됐다.

보림사에 따르면 최근 도입한 가로등은 BK동

영테크의 솔리드(고체) 배터리 기반 독립형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전봇대·전력선 매설 등 별도 공사가 필요 없는 완전 자립형 구조다.

우천 시에도 7~8일간 점등이 가능하며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수명은 4~5배(20년 이상), 충

전 속도는 2배 이상 빠르고 폭발 위험이 없는 안정성을 갖췄다.

보림사는 국보 제44호 절초비로자나불좌상, 국보 제117호 보조선사탑 등 문화재를 보유한 천년 고찰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조경 시스템 도입이 긍정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정응주 스님은 "자연의 빛만으로 어둠을 밝히는 새로운 실험"이라며 "전통 사찰이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감을 동시에 실현한 의미 있는 모델"이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강진 사의재에서 쉼표를 찍다

'여행자 쉼터' 개관...위케이션 라운지 등 체류형 관광 거점 조성

강진군이 강진읍 동성리 사의재 일원에 '강진 여행자 쉼터'를 조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으로 30억원 이상을 투입해 조성한 것으로, 강진을 도심에 체류형 관광 기반을 확충하고 방문객 편의와 문화체험 기능을 결합한 복합관광공간을 마련했다.

여행자 쉼터는 2022년 부지 확정을 시작으로 2023년 기본·실시설계, 같은 해 12월 건축공사 착공, 2024년 건축물 준공을 거쳐 2025년 내부 인테리어와 콘텐츠 보강을 완료함으로써 약 3년에 걸쳐 완성됐다.

시설은 층별로 구분해 1층에 관광정보 검색, 위케이션 업무공간, 소회의실, 휴식 라운지 등 실용

적 편의시설을 배치함으로써 관광객은 물론 원격 근무자와 지역 주민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2층은 강진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특화 공간으로 조성되었으며, 고려청자 다기를 활용한 차 문화 체험 공간인 '고려다방'과 전통복식을 직접 착용해 볼 수 있는 '고려의상실'이 마련되어 강진의 정체성을 담은 관광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진군은 2026년부터 전남 인력을 배치해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